

대학생방한단 (파견) 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각종 시찰, 대학 방문 등을 통한 동세대와의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 참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일본의 매력을 널리 적극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간의 상호이해의 촉진과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일본의 대학생 등 30 명

【방문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9 월 7 일 (토요일) 한국 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특강 청강,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의 교류

■ 파견 (오프라인) :

9 월 20 일 (금요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9 월 21 일 (토요일) 오리엔테이션

【교류】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필드워크

9 월 22 일 (일요일)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 참가

9 월 23 일 (월요일) 【예방】 한국 외교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대학방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특강】 ‘일본대중문화: 일본 오타쿠와 한국 오덕후’

【교류】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 및 학생교류

9 월 24 일 (화요일) 【시찰】 오두산통일전망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시찰】 서울역사문화박물관, 경희궁, 【교류】 홈스테이

9 월 25 일 (수요일) 홈스테이에서 집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이동

9 월 26 일 (목요일) 【시찰】 커먼즈필드 춘천, 【시찰】 남이섬, 서울특별시에 이동

9 월 27 일 (금요일) 【시찰】 전쟁기념관, 【시찰】 성수동, 서울의 숲, 성과보고회

9 월 28 일 (토요일) 인천국제공항 출국

2. 기록사진

	
2024 년 9 월 21 일 【교류】 한국대학생방일단 참가자들과 그룹별 프로젝트	2024 년 9 월 22 일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
	
2024 년 9 월 23 일 【예방】 한국 외교부	2024 년 9 월 23 일 【대학방문 · 교류】 서울대학교 캠퍼스투어 및 학생교류
	
2024 년 9 월 24 일 【시찰】 오두산 통일전망대	2024 년 9 월 24 일 【교류】 홈스테이
	
2024 년 9 월 26 일 【시찰】 커먼즈필드 춘천	2024 년 9 월 27 일 【시찰】 전쟁기념관,

3. 참가자 소감 (발췌)

◆ 일본 대학생

남북간의 ‘이산가족’의 존재는 오두산전망대를 방문하여 사진과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번 방문을 기회로 그렇게 헤어지게 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과 북한의 문제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일본 대학생

전쟁기념관에서의 해설자 분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옛날 분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잊지 않고 현재의 평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써 한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번에 우리가 방한단으로서 방한한 의미가 다시 한번 명확해진 느낌이 들었다.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세계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념관에서의 역사 자료와 사진을 통해 배움으로써 재확인할 수 있었다.

◆ 일본 대학생

커먼즈필드 춘천은 지방창생에 관심이 있는 나에게 가장 인상에 남은 방문지 중 하나였다.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많은 공통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배우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느낀 방문이었다. 양국의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지상명령이고, 반드시 필요한 그 협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반한, 반일 감정을 줄은 방향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느꼈다.

◆ 일본 대학생

대학생 방일단과 서울대학교 학생 등 동세대와의 교류는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우리가 짊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준 기회이기도 했고, ‘한일교류’로써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로 즐거웠고, 국적이나 언어와 상관없이 좋은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다고 느낀 기회이기도 했다.

4. 한국 측 소감 (발췌)

◆ 한국 측 기관 담당자

8 박 9 일의 기간 동안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실제 현장에서 접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방한 일정은 양국의 청년교류가 미래의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초석임을 상기시켜준 경험이었다.

◆ 한국 측 교류상대 대학생

동세대의 일본 친구들과 교류하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대단히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자료 등

 【2024年東京大学生協協賛】9月22日(月) 昨日はソウルの「2024年韓国博覧会」で「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を運営しました。韓国では「2024年韓国博覧会」が開催されており、多くの国々が出展しています。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では、日本の文化や製品を紹介し、韓国の方々と交流しました。また、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では、日本の文化や製品を紹介し、韓国の方々と交流しました。また、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では、日本の文化や製品を紹介し、韓国の方々と交流しました。	 【2024年東京大学生協協賛】9月24日(水) 昨日は仁川の「2024年韓国博覧会」で「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を運営しました。仁川は、韓国の重要な都市であり、多くの国々が出展しています。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では、日本の文化や製品を紹介し、仁川の方々と交流しました。また、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では、日本の文化や製品を紹介し、仁川の方々と交流しました。また、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では、日本の文化や製品を紹介し、仁川の方々と交流しました。
2024년 9월 22일 (Instagram) 오늘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Seoul’에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우리의 부스 운영 테마는 ‘재해피해자의 지혜’입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 한국 방문자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7월부터 준비해서 임했습니다. 당일은 많은 분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 주셔서 한국의 많은 분들께 재해에 대해 충분히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9월 24일 (Instagram) 이산가족에 대한 것이나 리얼한 북한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고 그런 역사를 나와 같은 일본의 젊은이들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年東京大学生協協賛】9月25日(木) 昨日は後쿠시마의「2024年韓国博覧会」で「日本交流センター」のブースを運営しました。후쿠시마는 최근 이웃나라에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특산품’을 선물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지만, 오히려 후쿠시마는 안전한지, 뜯소문으로 인한 피해로 힘들지는 않은지 등 질문을 해 주셔서, 현재 상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年東京大学生協協賛】9月26日(金) 今日は커먼즈필드를 방문하고 지방도시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기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협력하여 기후나 식료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야기 중 인상에 남은 것은 시설 관계자 여러분이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아이덴티티를 살린 도시만들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를 생각함과 동시에 지방도시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朝鮮日報 있다/김동현 기자 일본 도쿄외국어대를 다니는 카와이 아이미(22)씨는 이날 한국 외교부, 일본 외무성이 공동 주최하는 한일 대학생 교류 대표단 소속으로 한일축제한마당을 찾았습니다. 부스엔 일본에 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 표현들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카와이씨는 이날 "어린 시절 일본과 한국은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최근 미국에 교환 유학을 갔다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의지하고 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감정도 남달라졌다"며 "이름 계기로 일본에 돌아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을 찾은 소감을 물으니, "일한관계라는 것이 내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고 다양하게 맺어져 있어 놀랐다. 맞은편에 내 출신지인 아이치현TV에서 설치한 부스가 있어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이치현 지역인 나고야와 한국 부산이 함께 제작한 드라마를 기념하는 것이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일, 53차 대학생 교류사업 진행...日 대학생 30명 방한 2024.09.29 09:30 수정 2024.09.30. 오후 2:30 김대환 기자 한일 대학생 교류 사업 일환 방한...한국 학생들은 11명 방한  일본 대표단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김대환 기자)
2024년 9월 28일 (조선일보 온라인)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에서의 단원 인터뷰 게재 어린 시절 일본과 한국은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최근 미국에 교환 유학을 갔다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 서로 의지하고 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감정도 남달라졌다. 이를계기로 일본에 돌아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2024년 9월 30일 (뉴스 1 온라인) 한일, 53차 대학생 교류사업 진행...日 대학생 30명 방한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일대학생교류 사업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해, 양국 미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일 관계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6. 보고회에서의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1. 訪韓中に学んだこと・感じたこと 2. アクションプラン(個人の活動系)	 1. 訪韓中に学んだこと・感じたこと 2. アクションプラン
【성과 발표】 • 미디어를 통해 얻었던 한국의 인상과 현지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사실에 큰 괴리가 있었다. 보도와 SNS 등에서는 일한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코멘트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9일간 만난 수십 명, 수백 명의 한국분들은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일본과 한국은 외교적으로 보아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외교부에서의 강의에서는 일한의 정상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셔틀외교’와 방한외국인 중 차지하는 일본인	【성과 발표】 • 한국전쟁은 일본 교과서에는 한줄로 설명이 끝났었는데, 이번 방한에서는 전쟁 발발 배경과 이산가족문제, 그리고 같은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갈등 등 대단히 복잡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같은 ‘전쟁’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경험해 온 전쟁과는 매우 달랐다. 책으로 배우는 학습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지를 방문해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 •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있어 식문화와 언어 등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비율이 1 위, 방일외국인 중 차지하는 한국인 비율이 1 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서울 중심부에는 많은 일본인 관광객이 있었고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이 많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액션플랜】 ▪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을 예방하여 이번 방한활동을 총영사에게 보고하기. ▪ 예방의 상황을 대학의 외국어교육연구센터의 HP 또는 X 에 게재하기. ▪ 방한활동에 대해 대학 수업에서 발표하기. ▪ TOPIK 과 한글검정을 수험하여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나가기. ▪ 한국에 단기유학 하기.	다. 한편으로 차이점으로써는 유교의 영향과 존경에 대한 표현방법의 차이, 가옥 구조의 차이, 설비의 차이, 국민성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첫 방한이었던 점도 있어, 문화 차이는 들어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낀 것은 처음이어서 인상에 남았다. 【액션플랜】 ▪ Instagram 과 note 에서의 발신하기. ▪ 소속학교의 국제과 담당자와 상담하여 포털 네트서비스 등을 통해 방한단에서의 경험을 학내에서도 확산하기. ▪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즐거웠을 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 한국어 레슨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계속하기.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